

濟大生の 價値觀에 관한 調査研究

高永友* · 金斗和**

目 次	
I. 緒 論	2. 社會觀
II. 研究方法 및 節次	3. 職業觀
1. 研究對象 標集 및 調査	4. 幸福觀
2. 調査道具	5. 倫理道德觀
3. 資料處理 및 分析	6. 異性觀
III. 結果 및 論議	IV. 要 約
1. 國家觀	○ 參考文獻

I. 緒 論

오늘날 우리 社會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文化交流의 擴大와 급작스런 産業化 社會로 變貌하면서 克服해야 할 많은 問題들을 惹起시켰다.

文化面에서 볼 때 우리 固有의 生活樣式이나 傳統的인 價値體系는 流入文化에 壓倒되어 마치 外來文化의 受容만이 格調있는 現代人의 生活習態인양 인식되고 選好하는 傾向이 深化되었다.

또한 社會面에서 보면 急成長한 經濟成長과 專門化된 産業社會는 國民生活의 모든 面に 合理主義的 生活樣式으로 달바꿈하면서 利己主義的 性向과 貧富隔差, 違和感等 社會的 病理現象을 만연시키기도 했다. 한편 政治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分斷 40年의 南北이 서로 대치된 상황임에도 이를 克服해야 하는 當爲性에 心血을 쏟으면서 成熟된 自由民主主義 國家로 뿌리내리기 위한 온갖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 學生生活研究所 調査研究·相談指導部長(農科大學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就業輔導部長 署理

특히 80年代에 들어서면서 教育機會의 擴大로 急増한 大學生 數는 稀少價値의 缺如와 卒業後 就業難 等 現實의 問題와 無수히 부딪히며 갈등과 좌절감을 경험해야 했고, 더우기 正義社會 具願에 강렬한 熱望을 지닌 젊은 世代들은 現實參與에의 慾求를 高潮시켰음도 否認 못할 事實이기도 하다.

이와같이 우리 社會의 政治, 經濟, 文化, 教育 등의 급격한 변화와 심각한 問題들은 우리 社會를 多價値社會로 變貌시켰으며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世代에게 價値觀의 混亂과 變化를 가져오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또한 價値觀은 時代와 사람에 따라 결코 일정할 수는 없다고 보면 價値觀의 변모, 변화 그 自體를 그렇게 重要視할 것은 아니기도 하다. 더 구나 未來指向의이고 開拓의인 價値觀을 가진 사람은 不變의 場面보다 可變의 事項에 關心과 價値가 집중될 수 있고 오히려 價値가 완전히 안정되어 不變한다면 個人的 또는 社會的 變化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價値觀이 명료하지 않고 安定되지 않고서는 人間의 삶의 目的이나 意義를 찾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삶 의 주변을 해석하고 評價할 수도 없게 된다. 더우기 혼돈과 무질서한 사회, 급변하고 多價値 社會에서 수없이 접하게 되는 選擇의 상황, 葛藤의 상황에서 확고한 가치관이 없이는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여 방황하게 된다. 종래는 自身은 물론 국가·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다.

鄭範謨(1984)는 價値觀이야말로 사람의 動機와 抱負를 크게 결정해 주고, 知覺과 解釋을 左右하며, 人間의 滿足과 意義를 얻는 데 결정적인 役割을 해준다고 했다. 그러므로 價値觀은 人間行動의 指標의 役割者로서 事物의 正邪是非를 더욱 분명하게 判斷할 수 있게 하고, 方向性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올바른 價値觀을 確立하여 大學生 모두는 自身の 成長은 물론 國家·社會發展에 크게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濟州大學은 綜合大學校로 昇格된지 불과 5年余 밖에 안된다. 그러므로 學問과 研究에 있어서 아카데미한 傳統이나 또는 그 外 學生 數的으로도 國內 尤수의 先進大學과는 아직은 거리감이 없지 않아 있다. 더구나 本道는 地域의 特性으로 인해 文化의 中心圈과 中心的 產業圈과는 떨어져 있음인지 아직까지는 비교적 평온하고 소망스런 價値體系가 유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近來 매스컴과 交通手段의 發達은 諸影響圈과의 時空의 距離를 단축시켰고 더구나 本道의 天惠의인 特殊農業, 觀光資源 등이 급속도로 開發되면서 道民 모두는 傳統의 生活樣式, 消費性向, 價値意識 등에 상당한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未來 濟州地域 開發의 主役이 될 青年 學生들은 急變하는 現實의 狀況과 社會的 矛盾에 민감한 反應을 보이고 있기도 해서 이들의 意識이나 行動에 대한 見解들을 파악할 必要性은 시급히 느끼게 한다.

그러므로 本 研究에서는 國家, 社會, 職業, 幸福, 倫理道德, 異性의 6個 價値觀 領域에서 濟大生들은 現實과 未來의 여러 측면을 어떻게 知覺하고 있으며 또한 그 見解는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大學教育에 올바른 方向이 摸索되고, 특히 學生 教育과 指導의 基礎資料로서

寄與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研究하였다.

Ⅱ. 研究方法 및 節次

1. 研究對象 標集 및 調查

本 研究에서는 1986年 11月 現在 本校 在學中인 1, 2, 3學年 總 4,806名을 대상으로 設問紙를 配布하고 수합된 設問紙 2,351枚 中 未應答, 1問項 多應答者 등 資料로서 不適合한 設問 應答紙를 除外하여 實際 表<1>과 같이 2,285名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學生 指導資料로서의 活用을 위하여 卒業豫定者인 4學年 學生은 本 調查에서 除外시켰다.

表<1> 調查對象 學生數

系列別		大 學 別						學 年 別			性 別		家 族 環 境 別			總 調 查 學 生 數
人文· 社會	自然	人文大	社科大	師範大	農大	海科大	理工大	1年	2年	3年	男	女	上	中	下	
1,319	966	350	498	529	331	153	433	896	685	704	1,327	958	71	1,610	604	2,285

2. 調查道具

本 研究의 設問紙는 6個의 價値觀 領域에서 總 23個의 問項으로 各 문항에서 「다지선다형」 응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 內容은 黃應淵, 孫香淑, 徐昌源, 吳世德 등이 이미 제작한 것을 토대로 하여 濟州大學校 學生에 맞도록 개편 제작하였으며, 表<2>와 같이 6個의 가치 觀 영역에서 下位領域을 定하고 下位領域當 1個 問項을 제시하여 測定道具를 構成하였다.

表<2> 測定道具의 構成

價値觀 領域	下 位 領 域	質 問 內 容
國 家 觀	國 家 發 展 要 因	國 家 發 展 的 重 要 的 要 因
	國 家 安 定 要 因	남 북 대 峙 狀 況 中 國 家 安 定 及 繁 榮 維 持 的 原 動 力
	護 國 的 意 識	戰 爭 發 發 時 護 國 意 志
	國 家 及 個 人	國 家 及 個 人 的 關 係 認 識
	現 實 參 與	現 時 局 에 對 한 主 張 及 行 動 을 보 는 견 解
社 會 觀	社 會 風 潮	우 리 社 會 的 最 大 的 病 弊
	貧 富 差 異	國 民 生 活 中 的 貧 富 差 異 的 原 因

價値觀 領域	下位 領域	質 問 內 容
社 會 觀	出 世 影 響 現 實 適 應 愛 鄉 意 識	立身出世的 主要 영향 認識 自身の 일에 充實한 사람을 보는 見解 지역개발에 外地人 참여에 대한 견해
職 業 觀	職 業 選 好 직업인의 待遇 就 業 難	가장 바람직한 직업 選好 의식 가장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할 職業人 취업을 위한 바른 認識
幸 福 觀	幸福의 要素 행복의 所在 행복에의 영향 존 재 의 식	人間 幸福의 중요시되는 要素 참된 幸福의 所在 행복을 위한 실천 意志 현재 存在하고 있다는 自身の 價値
倫理道德觀	倫理道德 풍조 행 동 準 據 傳 統 倫 理	定立되어야 할 倫理道德 行態의 課題 일상행동에 중요하게 의식되는 規準 崇祖 및 孝親에 대한 見解
異 性 觀	男 女 愛 情 異 性 交 際 남 녀 平 等	배우자 선택의 基準 異性交際의 목적 남녀 평등의 견해와 條件

3. 資料處理 및 分析

수합된 設問資料는 濟州大學校 電子計算研究所에 依賴하여 電算統計 處理하였다.

各 問項別로 全體 學生의 反應, 그리고 系列別, 大學別, 學年別, 性別, 家庭環境別로 問項에 따른 反應頻도와 各各의 百分率을 調査하였으며 특히 x^2 檢定을 實施하여 有意性 如否를 調査하였다.

Ⅲ. 結果 및 論議

1. 國家觀

(1) 國家의 發展要因

現在 우리나라 國家發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要因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에 있어서 表〈1-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意識의 近代化(39.3%), 民主發展(27.0%),

國民和合(18.7%), 經濟發展(8.0%), 훌륭한 指導者(5.5%)의 順으로 重要하게 反應하고 있다.

本 問項에서 大學, 學年, 男女 學生別 모두가 意識이 近代化되어야 國家는 發展한다는 생각을 가장 높은 要因으로 나타내면서 통계적으로 매우 有意義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反應을 大學別로 보면 人文大學 學生들이 다른 大學에 비하여 意識의 近代화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學年別로 보면 저학년에서보다 高學年에 갈수록 더 높은 경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男學生에 비해 女學生에서 더욱 意識이 近代化되어야 國家는 發展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음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보겠다.

表< 1-A >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

하위영역	반응								Total	x ² -test
	구분		1	2	3	4	5	6		
	전체		860(37.6)	188(8.2)	569(24.9)	110(4.8)	514(20.5)	44(1.9)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	518(39.3)	105(8.0)	356(27.0)	72(5.5)	247(18.7)	21(1.6)	1,319(100.0)	x ² =32.14 df=5 P<0.001
		자연	342(35.4)	83(8.6)	213(22.0)	38(3.9)	267(27.6)	23(2.4)	966(100.0)	
국대 가학 발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인문대	160(45.7)	20(5.7)	78(22.3)	17(4.9)	71(20.3)	4(1.1)	350(100.0)	x ² =52.59 df=25 P<0.005
		사회과학대	179(36.6)	45(9.2)	134(27.4)	29(5.9)	91(18.6)	11(2.2)	489(100.0)	
		사범대	203(38.4)	42(7.9)	154(29.1)	23(4.3)	100(18.9)	7(1.3)	529(100.0)	
		농대	111(33.5)	27(8.2)	81(24.5)	14(4.2)	90(27.2)	8(2.4)	331(100.0)	
		해양과학대	53(34.6)	20(13.1)	23(15.0)	7(4.6)	47(30.7)	3(2.0)	153(100.0)	
전 요 인	학 년 별	1년	313(34.9)	75(8.4)	207(23.1)	46(5.1)	236(26.3)	19(2.1)	896(100.0)	x ² =25.23 df=10 P<0.01
		2년	258(37.7)	55(8.0)	172(25.1)	36(5.3)	156(22.8)	8(1.2)	685(100.0)	
		3년	289(41.1)	58(8.2)	190(27.0)	28(4.0)	122(17.3)	17(2.4)	704(100.0)	
성 별	남	452(34.1)	117(8.8)	337(25.4)	68(5.1)	319(24.0)	34(2.6)	1,327(100.0)	x ² =12.68 df=6 P<0.05	
	여	408(42.6)	71(7.4)	232(24.2)	42(4.4)	195(20.4)	10(1.0)	958(100.0)		
가환 정별	상	23(32.4)	8(11.3)	18(25.4)	6(8.5)	16(22.5)	0(0.0)	71(100.0)	x ² =11.54 df=10 N.S ?	
	중	617(38.3)	141(8.8)	386(24.0)	80(5.0)	355(22.0)	31(1.9)	1,610(100.0)		
	하	220(36.4)	39(6.5)	165(27.3)	24(4.0)	413(23.7)	13(2.2)	604(100.0)		

※ 1. 意識의 近代화 4. 훌륭한 지도자
 2. 경제발전 5. 국민화합
 3. 민주발전 6. 기타

最近 우리나라는 國民生活의 모든 領域에서 급작스런 發展을 가져왔다. 더구나 70年代 이후 教育機會의 擴大와 先進 外國의 文物을 接할 수 있는 機會의 擴大로 意識改革과 物量面에서 눈부신 發展을 가져왔다. 그러나 物量的인 發展에 비해 國民意識 水準도 이에 相應할 정도로 發展했는가를 다같이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한 나라의 發展에 있어서 物量的이고 外形的인 發展도 重要하지만 精神的이고 內面的인

發展은 더욱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點에서 우리나라 發展을 위해 經濟的인 余他 要因들보다 「意識이 近代化」되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比重을 두었음은 未來 이 나라를 責任져야 할 大學生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價値意識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나 本 問項에서 意識의 개혁을 先行要因으로 비중있게 先제하면서도 어느 한 要因에 偏重됨이 없이 民主發展, 國民和合, 經濟發展 等に 比較적 高은 分布를 보이고 있음은 國家發展을 위해서는 어느 한 要因만이 獨立的으로 重要한 것이 아니라 여러 要因들이 補充的으로 多같이 併行해서 이룩해 나가야 비로소 國家의 發展은 이룩되는 것임을 示唆하여 申하고도 보아진다.

(2) 國家의 安定要因

현재 우리나라가 南과 北이 대치된 상황임에도 比較적 安定과 變영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原動力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했다.

表< 1-B >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63.2%) 국민 각자가 맡은 일에 充實한 덕이라고 반응하고 있다. 다음의 반응으로 友邦國의 保護와 支援의 덕이다 (16.5%)라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大學生의 愛國愛族 運動의 德이라는 생각이나 爲政者의 愛세 준 德이라는 見解를 가진 학생들은 기타 (10.6%) 만큼도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음이 특이하다.

表< 1-B >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임에도 安定과 變영을 유지해오고 있다면 그 原動力은?

하위 영역	반응		구분					Total	x ² - test
	1	2	3	4	5				
국가별	전체		84(3.7)	1,445(63.2)	138(6.0)	376(16.5)	242(10.6)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48(3.6)	803(60.9)	85(6.4)	213(16.1)	170(12.9)	1,319(100.0)	x ² =19.3 df=4
		자연	36(3.7)	642(66.5)	53(5.5)	163(16.9)	72(7.5)	966(100.0)	P<0.001
	대학의	인문대	13(3.7)	213(60.9)	16(4.6)	65(18.6)	43(12.3)	350(100.0)	
		사회과학대	19(3.9)	288(58.9)	39(8.0)	82(16.8)	61(12.5)	489(100.0)	x ² =42.81
		사범대	19(3.6)	334(63.1)	33(6.2)	74(14.0)	69(13.0)	529(100.0)	df=20
		농대	14(4.2)	211(63.7)	23(6.9)	58(17.5)	25(7.6)	331(100.0)	P<0.005
		해양과학대	11(7.2)	89(58.2)	10(6.5)	29(19.0)	14(9.2)	153(100.0)	
	안정	이공대	8(1.8)	310(71.6)	17(3.9)	68(15.7)	30(6.9)	433(100.0)	
		1년	39(4.4)	576(64.3)	66(7.4)	141(15.7)	74(8.3)	896(100.0)	x ² =22.20
2년		19(2.8)	420(61.3)	28(4.1)	127(18.5)	91(13.3)	685(100.0)	df=8	
성별	3년	26(3.7)	449(63.8)	44(6.3)	108(15.3)	77(10.9)	704(100.0)	P<0.005	
	남	성	52(3.9)	831(62.6)	96(7.2)	219(16.5)	129(9.7)	1,327(100.0)	x ² =10.44 df=4
		여	32(3.3)	614(64.1)	42(4.4)	157(16.4)	113(11.8)	958(100.0)	P<0.05
	가 환경 정	상 중 하	상	8(11.3)	45(63.4)	7(9.9)	9(12.7)	2(2.8)	71(100.0)
중			57(3.5)	1,041(64.7)	93(5.8)	246(15.3)	173(10.1)	1,610(100.0)	df=8
하			19(3.1)	359(59.4)	38(6.3)	121(20.0)	67(11.1)	604(100.0)	P<0.001

※ 1. 위정자의 애세준 덕이다. 4. 우방국의 보호와 지원의 덕이다.
 2. 국민 각자가 맡은 일에 충실한 덕이다. 5. 기타
 3. 대학생들의 애국애족 운동의 덕이다.

이러한 反應들을 각 區分別로 살펴 보면 높은 비중의 1번 내용에서 人文·社會系 學生들 보다 自然系 學生들이 多少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고 自然系에서도 理工大學 學生들이 더욱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學年別로 보면 2學年에서 1, 3학년에 비하여 다소 낮은 傾向을 보이고 있는 반면 友邦國의 보호와 支援의 덕이라고 反應한 學生들이 다소 높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男女 學生別로 보면 큰 差異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女學生들에게서 국민 각자가 애써준 덕이라고 다소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分斷 40年이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의 祖國을 지켜오고 있다. 더구나 賦存資源이 貧弱한데다 6.25와 같은 미증유의 戰亂을 겪으면서도 놀라운 成長과 發展을 해왔다. 그 原動力은 國民 各者의 責任意識, 友邦國의 保護와 支援, 젊은 世代의 愛國運動 등 여러 要因들이 綜合的으로 作用한 것은 물론이다. 그 中에서도 國民 各자가 자기의 分수를 지키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야말로 國家의 安정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하나 結集된 힘은 先進國을 향한 憧憬인 것으로 理解되게 한다.

(3) 護國意識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戰爭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質問을 주어 보았다.

表<1-C>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χ^2 -test
	구분								
학 생 의 식	전 체		828(36.2)	760(33.3)	151(6.6)	256(11.2)	290(12.7)	2,285(100.0)	
	계 열 별	인문·사회	382(29.0)	467(35.4)	71(5.4)	182(13.8)	217(16.5)	1,319(100.0)	$\chi^2=11.0$ $df=4$ $P<0.001$
		자연	446(46.2)	293(30.3)	80(8.3)	74(7.7)	73(7.6)	966(100.0)	
	대 학 의 별	인문대	84(24.0)	119(34.0)	12(3.4)	69(19.7)	66(18.9)	350(100.0)	$\chi^2=185.18$ $df=20$ $P<0.001$
		사회과학대	169(34.6)	169(34.6)	37(7.6)	46(9.4)	68(13.9)	489(100.0)	
		사범대	130(24.6)	206(38.9)	31(5.9)	68(12.9)	94(17.8)	529(100.0)	
		농대	181(54.7)	80(24.2)	28(8.5)	25(7.6)	17(5.1)	331(100.0)	
		해양과학대	73(47.7)	42(27.5)	12(7.8)	14(9.2)	12(7.8)	153(100.0)	
	학 년 별	이공대	191(44.1)	144(33.3)	31(7.2)	34(7.9)	33(7.6)	433(100.0)	
		1년	324(36.2)	312(34.8)	57(6.4)	110(12.3)	93(10.4)	896(100.0)	$\chi^2=10.00$
2년		247(36.1)	225(32.8)	42(6.1)	72(10.5)	99(14.5)	685(100.0)	$df=8$	
성 별	3년	257(36.5)	223(31.7)	52(7.4)	74(10.5)	98(13.9)	704(100.0)	$N.S$	
	남	633(47.7)	408(30.7)	118(8.9)	89(6.7)	79(6.0)	1,327(100.0)	$\chi^2=316.17$ $df=4$ $P<0.001$	
여	195(20.4)	352(36.7)	33(3.4)	167(17.4)	211(21.0)	958(100.0)			
가 환 경 정 별	상	33(46.5)	21(29.6)	6(8.5)	7(9.9)	4(5.6)	71(100.0)	$\chi^2=15.70$	
	중	562(34.9)	567(35.2)	107(6.6)	175(10.9)	199(12.4)	1,610(100.0)	$df=8$	
	하	233(38.6)	172(28.5)	38(6.3)	74(12.3)	87(14.4)	604(100.0)	$P<0.05$	

※ 1. 학업을 중단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 4. 방법이 있다면 일단 피하고 보겠다.
 2. 관망해 보면서 위기라면 전쟁터에 나가겠다. 5. 기타
 3. 입영(소집)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表< 1-C >에서처럼全體 學生의 反應을 보면 學業을 中斷하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학생(36.2%)과 위기라고 하면 전쟁터에 나가겠다는(33.3%) 소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70%에 이르고 있다. 입영(소집)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6.6%) 소극적인 생각을 가진 학생들보다 방법이 있다면 일단 피하고 보겠다는(11.0%) 도피의식을 가진 학생이 다소 많다.

이러한 反應의 결과를 각 區分別로 살펴보면 自然系 학생들이 人文·社會系 학생들보다 國家危機時 보다 적극적인 參與意志를 보이고 있고 女學生보다는 男學生들이 보다 적극적인 參與資勢를 보이고 있다.

(4) 國家와 個人的 關係

國家와 個人은 어떠한 關係에 있는가를 質問했다. 表< 1-D >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表< 1-D >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x ² -test
	구분								
국가와 개인	전체		630(27.6)	848(37.1)	162(7.1)	135(5.9)	510(22.3)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359(27.2)	498(37.8)	85(6.4)	70(5.3)	307(23.3)	1,319(100.0)	x ² =5.80
		자연	271(28.1)	350(36.2)	77(8.0)	65(6.7)	203(21.0)	966(100.0)	df=4 N.S
	학대별	인문대	88(25.1)	128(36.6)	21(6.0)	25(7.1)	88(25.1)	350(100.0)	
		사회과학대	143(29.2)	193(39.5)	33(6.7)	22(4.5)	98(20.0)	489(100.0)	x ² =38.48
		사범대	131(24.8)	194(36.7)	30(5.7)	27(5.1)	147(27.8)	529(100.0)	df=20
		농대	103(31.1)	120(36.3)	27(8.2)	31(9.4)	50(15.1)	331(100.0)	P<0.01
해양과학대		40(26.1)	56(36.6)	14(9.2)	9(5.9)	34(22.2)	153(100.0)		
학년별	이공대	125(28.9)	157(36.3)	37(8.5)	21(4.8)	93(21.5)	433(100.0)		
	1년	295(32.9)	287(32.0)	68(7.6)	55(6.1)	191(21.3)	896(100.0)	x ² =30.64	
	2년	167(24.4)	266(38.8)	48(7.0)	35(5.1)	169(24.7)	685(100.0)	df=8	
성별	3년	168(23.9)	295(41.9)	46(6.5)	45(6.4)	150(21.3)	704(100.0)	P<0.001	
	남	365(27.5)	529(39.9)	109(8.2)	90(6.8)	234(17.6)	1,327(100.0)	x ² =47.34	
	여	265(27.7)	319(33.3)	53(5.5)	45(11.7)	276(28.8)	958(100.0)	df=4 P<0.001	
가환정별	상	22(31.0)	21(29.6)	12(16.9)	9(12.7)	7(9.9)	71(100.0)	x ² =25.76	
	중	449(27.9)	591(36.7)	111(6.9)	99(6.1)	360(22.4)	1,610(100.0)	df=8	
	하	159(26.3)	236(39.1)	39(6.5)	27(4.5)	143(23.7)	604(100.0)	P<0.005	

- ※ 1.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다소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강요에도 유보될 수 없다.
 3. 국가는 항상 개인에 우선한다고 본다.
 4. 개인은 항상 국가에 우선한다고 본다.
 5.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全體 學生의 反應을 보면 국가 發展을 위해서는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多少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認定하면서도 (27.6%)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어떠한 強要에도 留保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學生들이 더욱 많다. (37.1%)

또한 國家와 個人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는 質問內容에 있어서도, 국가도 개인도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선의 關係가 形成될 것이라는 소위 狀況論的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3%)

吳世德의 報告처럼 「國家發展과 個人의 自由 및 權利는 相互 對立的인 關係라기 보다는 相互 補完的인 關聯性을 갖는 概念으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그 限界는 明確하지 않지만 國民의 基本權인 個人의 自由와 權利가 國家發展이나 全體 次元의 公益性에 依해 다소라도 留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濟大生들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現實 參與

現實參與 領域의 問項으로 最近 一部 學生들의 時局에 대한 과격한 主張이나 行動에 있어서 그 見解는 어떠한가를 質問했다.

表 < 1-E > 최근 일부학생들의 시국에 대한 과격한 주장이나 행동에 대한 견해는 ?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x ² -test	
	구분	전체								
현 실	전체		530(23.2)	1,341(58.7)	218(9.5)	64(2.8)	132(5.8)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319(24.2)	782(59.3)	113(8.6)	30(2.3)	75(5.7)	1,319(100.0)	x ² =7.74 df=4 N.S	
		자연	211(21.8)	559(57.9)	105(10.9)	34(3.5)	57(5.9)	966(100.0)		
	학 벌	인문대	사회과학대	153(31.3)	269(55.0)	29(5.9)	11(2.2)	27(5.5)	489(100.0)	x ² =55.91 df=20
			사범대	102(19.3)	339(64.1)	55(10.4)	6(1.1)	27(5.1)	529(100.0)	
		농대	해양과학대	80(24.2)	189(57.1)	33(10.0)	16(4.8)	13(3.9)	331(100.0)	P<0.005
이공대			38(24.8)	80(52.3)	22(14.4)	4(2.6)	9(5.9)	153(100.0)		
참 여	학년별	1년	198(22.1)	527(58.8)	99(11.0)	22(2.5)	50(5.6)	896(100.0)	x ² =8.23	
		2년	166(24.2)	404(59.0)	51(7.4)	19(2.8)	45(6.6)	685(100.0)	df=8	
		3년	166(23.6)	410(58.2)	68(9.7)	23(3.3)	37(5.3)	704(100.0)	N.S	
가 정 별	성별	남	345(26.0)	713(53.7)	138(10.4)	49(3.7)	82(6.2)	1,327(100.0)	x ² =36.30 df=4 P<0.005	
		여	185(19.3)	628(65.6)	80(8.4)	15(1.6)	50(5.2)	958(100.0)		
	가 환 경 정 별	상	20(28.2)	38(53.5)	10(14.1)	1(1.4)	2(2.8)	71(100.0)	x ² =14.27 df=8	
중하		350(21.7)	969(60.2)	152(9.4)	51(3.2)	88(5.5)	1,610(100.0)			
		하	160(26.5)	334(55.3)	56(9.3)	12(2.0)	42(7.0)	604(100.0)	N.S	

- ※ 1. 전폭적으로 옳다고 보며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2. 주장은 옳은 점이 많으나 행동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
 3. 주장이나 행동이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 같다.
 4.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엄격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5. 기 타

전체 학생의 58.7%가 時局에 대한 主張에는 다소 肯定的인 見解를 가지면서도 行動만은 참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다. 특히 大學別로는 師範大學 學生과 理工大學 學生들이 行動을 참가해야 된다는 内容에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主張이나 行動에 오히려 찬사를 보내고 싶다는 學生들은 男學生에서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本項의 反應에서 극히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는 學生 即 主張이나 行動이 학생의 本分에서 벗어난 것 같다(9.5%)와 국가의 安定과 繁榮을 위해서 엄격한 制裁가 있어야 한다(2.8%)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더러 있음을 表<1-E>에서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일부 학생이긴 하지만 時局에 대한 주장이나 행동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걱정되는 事例들이 있다. 이를테면 自由民主體制를 否定하는 誤導된 이론이나 權力意志가 내포된 행동들은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生存을 위해 극히 위험한 일이다. 특히 學生들의 主張이나 行動에서 「全部가 아니면 全無다」라는 식의 요구는 對話와 解決의 채널이 없게 되고, 또한 아무리 훌륭한 目的도 이룩하려는 그 過程에서 平和의이 아닌 과격한 방법으로 이룩하려 하면 누구도 共感할 수 없는 것이다. 共感이 없을 때 愛情과 信賴를 잃게 되고, 서로간에 애정과 信賴를 잃게 되면 결국 이룩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正義롭고, 보람되고, 理想的인 것을 追求하는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장이나 행동이 그 표출되는 양상에서 애국적 憧憬을 기대하는 마음인 것이다. 다시말해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 등 국가의 현실적 矛盾이나 非理를 깊은 愛情과 信賴를 바탕으로 愛國의 衷情에서 批判하고 主張하며, 때로는 秩序 있는 행동으로 表出되어야 함이 바람직한 見解가 아닌가 한다.

2. 社會觀

(1) 社會風潮

우리나라는 70年代를 기점으로 하여 産業이 急成長했고 이로 인한 社會構造의 變化와 더불어 우리 社會에 많은 病弊들이 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拜金思想, 利己主義, 貧富隔差, 不正腐敗, 頹廢의 傾向 등 심각한 문제들이 社會風潮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表<2-A>는 우리 사회의 병폐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의 結果이다. 本表에 의하면 부정부패(27.7%), 이기주의적 경향(20.3%), 불신풍조(16.1%), 황금만능사상(14.0%), 빈부격차(12.3%), 향락적 퇴폐주의 경향(7.4%), 기타(2.3%)의 순으로 反應하고 있다. 이러한 反應은 系列別, 大學別, 男女別로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學年사이와 家庭環境間에 5%의 水準에서 統計的으로 有意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本表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社會에 만연된 병폐현상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만 偏重된 反應을 띠고 있지 않다. 이러한 結果는 우리 社會에 만연된 그릇된 풍조가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성이 충분히

表< 2-B > 우리나라 국민생활에 빈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은?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χ^2 -test
	구분								
빈 부	전 체		293(12.8)	415(18.2)	1,297(56.8)	197(8.6)	83(3.6)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142(10.8)	236(17.9)	802(60.8)	95(7.2)	44(3.3)	1,319(100.0)	$\chi^2=27.4$ $df=4$ $P<0.001$
		자연	151(15.6)	179(18.5)	495(51.2)	102(10.6)	39(4.0)	966(100.0)	
	대학	인문대	44(12.6)	73(20.9)	199(56.9)	23(6.6)	11(3.1)	350(100.0)	
		사회과학대	46(9.4)	80(16.4)	311(63.6)	36(7.4)	16(3.3)	489(100.0)	$\chi^2=55.52$
		사범대	56(10.6)	88(16.6)	327(61.8)	41(7.8)	17(3.2)	529(100.0)	$df=20$
		농대	49(14.8)	67(20.2)	163(49.2)	35(10.6)	17(5.1)	331(100.0)	$P<0.001$
해양과학대		27(17.6)	26(17.0)	68(44.4)	27(17.6)	5(3.3)	153(100.0)		
이공대	71(16.4)	81(18.7)	229(52.9)	35(8.1)	17(3.9)	433(100.0)			
차	학	1년	130(14.5)	176(19.6)	478(53.3)	80(8.9)	32(3.6)	896(100.0)	$\chi^2=12.04$
		2년	80(11.7)	128(18.7)	390(56.9)	58(8.5)	29(4.2)	685(100.0)	$df=8$
		3년	83(11.8)	111(15.8)	429(60.9)	59(8.4)	22(3.1)	704(100.0)	$N.S$
이	성	남	195(14.7)	222(16.7)	709(53.4)	142(10.7)	59(4.4)	1,327(100.0)	$\chi^2=40.06$ $df=4$ $P<0.001$
		여	98(10.2)	193(20.1)	588(61.4)	55(5.7)	24(2.5)	958(100.0)	
가	환경	상	10(14.1)	18(25.4)	35(49.3)	7(9.9)	1(1.4)	71(100.0)	$\chi^2=5.09$ $df=8$ $N.S$
		중	202(12.5)	290(18.0)	917(57.0)	143(8.9)	58(3.6)	1,610(100.0)	
		하	81(13.4)	107(17.7)	345(57.1)	47(7.8)	24(4.0)	604(100.0)	

- ※ 1. 부자일수록 욕심이 더 많기 때문이다. 4. 근검절약하지 못하는 국민성에도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있어지는 일이다. 원인이 있다.
 3. 경제정책이나 분배정책에 잘못이 있다. 5. 기타

우리 國民生活에 있어서 貧富의 隔差가 심하여 소위 富나 貧이 偏在되는 현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설사 존재되어 있지 않아서도 어느 階層이든 相對的 貧困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만으로도 社會는 不安할 수가 있다. 또한 富者와 貧者 사이에 前者는 자기의 努力이나 能力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고 後者는 자기가 아닌 他에서 그 原因이 전적으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 자체도 問題가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社會에 富가 偏在되어 있지 않고, 相對的으로 貧困을 느끼지 않고, 모든 責任은 自身에게 있다고 하는 價値設定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本來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貧富의 差는 불가피하게 形成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財產의 差異, 能力의 差異, 教育 또는 訓練機會의 差異 등 不均衡 分配를 招來하는 根本的인 要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社會構成員 모두는 이러한 要因들에 自身을 接木해 보려는 努力은 별로 없이 國家의 分配政策이나 經濟政策에서만 그 矛盾을 찾으려고 하면 또 하나의 社會的 矛盾을 招來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各者는 社會構成員의 한 主體로서 명료한 價値判斷이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게 한다.

學生에 비해서 人文·社會系 學生들이 더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師範大學 學生들이 여기에 比重을 높게 두고 있다.

學年間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高學年에서보다 저학년에 갈수록 實力과 能力이 출세의 큰 요인이 된다고 반응하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女學生들에게서 더 높은 경향을 띠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다시 綜合해서 논의를 하여보면 最近 出世 또는 進路開拓을 위한 각종의 경쟁에서 무엇보다 우선 “實力”이 절실한 것으로 解釋되게 하며 師範大學 學生들이나 未來 自身の 職業인 教育者는 무엇보다 實力과 能力이 높지 評價받을 것이라는 見解가 있어서 本 응답의 내용에 他大學 學生들보다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다고도 생각되게 한다.

따라서 特異한 결과로서 學年間에 「背景」의 要因이 고학년에 갈수록 높다. 이러한 현상은 곧 부딪히게 될 自身の 進路問題에서 현재 성숙되지 못한 自身과 自信感의 결여에서 오는 갈등을 依他的 작용으로 해결해 보려는 心理的 投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더우기 本 問項에서 「人格과 德望이 있어야 한다」고 應答한 學生들은 他 要因에 비하여 가장 저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 하다. 오늘날처럼 生存競爭이 심한 우리 社會에서 人格이나 德望만을 가지고선 살아가기 매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學生들이 많이 있음을 유추하게 한다.

(4) 現實適應

現實社會에 適應하면서 자신의 일에 充實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質問을 주었다.

表〈2-D〉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學生에서 民主市民이다(73.2%), 安逸만을 追求하는 사람이다(10.8%), 愛國하는 사람이다(5.3%), 利己의인 사람이다(3.5%),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이다(2.5%)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實에 적응하는 사람을 愛國하는 사람이며 성실한 民主市民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學生들이 84.1%에 이르고 있으나 지조없이 利己의이고,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으로 소위 부정적 반응을 보인 학생들이 6%에 이르고 있다. 비록 否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에 비해 적은 숫자이긴하나 이러한 心性이 다소라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時間의 指向性으로 볼 때 現在의 토대없이 未來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現實에 適應한다는 것은 현실을 克服하는 것이 되고, 자기 일에 充實한다는 것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에 적응하는 것을 마치 現世영합적인 행위로만 간주한다는 가 또는 자신의 일에 充實하는 것을 한갓 利己의인 행위로만 간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多幸히도 本 問項의 결과에서처럼 區別로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나 대부분의 學生들이 우리 社會의 現實에 불평함이 없이 적응하며 오로지 自身の 일에 충실하는 사람들을 보는 見解가

肯定的 反應으로 定立되고 있어서 매우 價値있고 바람직한 現象이라고 생각된다.

表 < 2-D > 현실사회에 적응하면서 자기일에 충실하는 사람을 보는 견해

하위 영역	반응 구분		1	2	3	4	5	6	Total	χ^2 -test
	전체			121(5.3)	1,673(73.2)	247(10.8)	81(3.5)	58(2.5)	105(4.6)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56(4.2)	934(70.8)	163(12.4)	51(3.9)	37(2.8)	78(5.9)	1,319(100.0)	$\chi^2=29.4$ $df=5$ $P<0.001$
	자연		65(6.7)	739(76.5)	84(8.7)	30(3.1)	21(2.7)	27(2.8)	966(100.0)	
현대	인문대		15(4.3)	241(68.9)	53(15.1)	12(3.4)	8(2.3)	21(6.0)	350(100.0)	
	사회과학대		21(4.3)	339(69.3)	58(11.9)	14(2.9)	22(4.5)	35(7.2)	489(100.0)	$\chi^2=74.26$
	사범대		24(4.5)	400(75.6)	54(10.2)	25(4.7)	6(1.1)	20(3.8)	529(100.0)	$df=25$
	농대		28(8.5)	230(69.5)	44(13.3)	12(3.6)	5(1.5)	12(3.6)	331(100.0)	$P<0.001$
	해양과학대		15(9.8)	110(71.9)	9(5.9)	6(3.9)	5(3.3)	8(5.2)	153(100.0)	
실용	이공대		18(4.2)	353(81.5)	29(6.7)	12(2.8)	12(2.8)	9(2.1)	433(100.0)	
	1년		60(6.7)	662(73.9)	92(10.3)	29(3.2)	16(1.8)	37(4.1)	896(100.0)	$\chi^2=25.02$
	2년		28(4.1)	499(72.8)	90(13.1)	15(2.2)	19(2.8)	34(5.0)	685(100.0)	$df=10$
성별	3년		33(4.7)	512(72.7)	65(9.2)	37(3.3)	23(3.3)	34(4.8)	704(100.0)	$P<0.01$
	남		87(6.6)	946(71.3)	143(10.8)	53(4.0)	43(3.2)	55(4.1)	1,327(100.0)	$\chi^2=20.45$ $df=5$ $P<0.005$
여		34(3.5)	727(75.9)	104(10.9)	28(2.9)	15(1.6)	50(5.2)	958(100.0)		
가환경정별	상		12(16.9)	44(62.0)	11(15.5)	3(4.2)	1(1.4)	0(0.0)	71(100.0)	$\chi^2=39.67$
	중		75(4.7)	214(75.4)	166(10.3)	55(3.4)	35(2.2)	65(4.0)	1,610(100.0)	$df=10$
	하		34(5.6)	415(68.7)	70(11.6)	23(3.8)	22(3.6)	40(6.6)	604(100.0)	$P<0.001$

- ※ 1. 애국하는 사람이다.
- 2. 성실한 민주시민이다.
- 3. 안일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4. 지조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 5.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 6. 기 타

(5) 愛鄉意識

社會觀의 마지막 領域의 問項으로 濟州地域 開發과 관련시켜 地域社會의 土着精神과 愛鄉心을 靚음의 눈으로 接近시켜본 것이다. 그 質問內容으로 他地人이 濟州地域의 土地를 사들여 所重하게 開發할 경우,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았다.

全體學生의 50.9%가 開發에 目的을 두었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반응하고 있다. 두번째로 반응한 것은 濟州人의 生計가 위협받으므로 배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學生들이 29.3%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反應들은 人文·社會系列과 自然系列의 學生間에 또한 學年間에도 別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大學間에, 男女學生間에는 뚜렷한 見解의 差異가 表< 2-E >에서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農科大學 學生들이 濟州人의 生計가 위협받으므로 배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짐(34.1%)으로써 전체 反應비율에 비해 높은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農大生들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전공이 土地와는 不可分の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며 男學生들에 비하여 女學生의 경우 전적으로 찬성한다든지 또는 배척해야 된다는 소위 찬·반론이 분명한 학생들은 적지만 開發에 目的을 두었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56.1%) 하는 비교적 온건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表< 2-11 > 타지인이 제주지역의 토지몰 사들여 소중하게 개발한다면 ?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χ^2 -test	
	구분	전체								
배타의식	전체		167(7.3)	1,163(50.9)	191(8.4)	669(29.3)	95(4.2)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91(6.9)	685(51.9)	101(7.7)	390(29.6)	52(3.9)	1,319(100.0)	$\chi^2=3.64$ $df=4$ N.S	
		자연	76(7.9)	478(49.5)	90(9.3)	279(28.9)	43(4.5)	966(100.0)		
	대학별	인문대		19(5.4)	180(51.4)	21(6.0)	114(32.6)	16(4.6)	350(100.0)	
		사회과학대		41(8.4)	230(47.0)	38(7.8)	158(32.3)	22(4.5)	489(100.0)	$\chi^2=44.04$
		사범대		33(6.2)	301(56.9)	46(8.7)	130(24.6)	19(3.6)	529(100.0)	$df=20$
		농대		25(7.6)	142(42.9)	36(10.9)	113(34.1)	15(4.5)	331(100.0)	$P<0.005$
		해양과학대		19(12.4)	87(56.9)	10(6.5)	28(18.3)	9(5.9)	153(100.0)	
	학년별	이공대		30(6.9)	223(51.5)	40(9.2)	126(29.1)	14(3.2)	433(100.0)	
		1년	1년	82(9.2)	459(51.2)	79(8.8)	240(26.8)	36(4.0)	896(100.0)	$\chi^2=11.18$
2년			38(5.5)	348(50.8)	55(8.0)	214(31.2)	30(4.4)	685(100.0)	$df=8$	
3년	47(6.7)		356(50.6)	57(8.1)	215(30.5)	29(4.1)	704(100.0)	N.S		
성별	남	112(8.4)	626(47.2)	122(9.2)	407(30.7)	60(4.5)	1,327(100.0)	$\chi^2=19.91$ $df=4$		
	여	55(5.7)	537(56.1)	69(7.2)	262(27.3)	35(3.7)	958(100.0)	$P<0.001$		
	가환경점별		상	13(18.3)	31(43.7)	5(7.0)	21(29.6)	1(1.4)	71(100.0)	$\chi^2=26.02$
		중	115(7.1)	843(52.4)	144(8.9)	447(27.8)	61(3.8)	1,610(100.0)	$df=8$	
		하	39(6.5)	289(47.8)	42(7.0)	201(33.3)	33(5.5)	604(100.0)	$P<0.05$	

- ※ 1. 전적으로 찬성할 일이다.
- 2. 개발에만 목적을 두었다면 찬성할 수 있다.
- 3. 제주인이 서울이나 그외 지역의 땅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 4. 제주인의 생계가 위협받으므로 배척해야 한다.
- 5. 기 타

濟州道는 옛부터 대문과, 도둑과, 거지가 없다고 하는 3無精神이 뿌리내려 온 곳이다. 바람과 돌맹이가 많은 거치른 환경 속에서도 이를 男女老少 할것없이 開發의 意志로 이겨왔고 勤儉·節約하는 강인한 生活精神이 이 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지켜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60年代 이후 濟州地域이 農業資源, 海産資源, 觀光資源等 天惠의 고장으로 脚光받음에 따라 開發意慾도 어느 곳보다 高潮되었고, 더불어서 他地域의 많은 사람들이 濟州地域 開發에 參與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이러한 事實들에 있어서 이 고장을 지켜온 濟州人들에게 心理的으로 전혀 拒否反應이 없다

수 있는 직업이 53.3%로서 가장 높고,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15.8%), 安定性이 있는 職業 등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생각 외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職業을 選好하는 경우는 0.5%로서 매우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음은 특이하다.

本 問項의 결과를 區別로 보면 系列間, 學年間에는 큰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大學間과 男女學生 사이에는 見解의 差異를 크게 보이고 있으며 특히 女學生인 경우 男學生에 비하여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職業을 選好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職業은 일정한 報酬를 얻어 個人의 生活하기 위한 手段인 동시에 素質과 能力을 키워주어 自我發達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 個人은 職業에 종사함으로써 맡은 바 자기 몫의 역할을 하며 즐거움과 무거운 責任을 느껴야 한다.

그러므로 職業은 個人의 能力과 素質에 맞아야 하고 보람과 책임있는 姿勢로 勤實하게 종사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職業을 보면 出世爲主의 직업관이나 人氣爲主의 직업관보다도 많은 學生들이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職業을 選好하는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게 한다.

(2) 職業人의 待遇

우리 社會에서 가장 尊敬과 待遇를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質問을 했다.

表<3-B>에 의하면 教育者(33.1%), 일반근로자(23.0%), 학자(8.4%), 기술자(7.0%), 예술인(5.0%), 성직자(4.5%), 정치인(2.8%), 의사(1.3%), 관료(1.0%), 기업인(0.7%) 등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이러한 反應을 각 區別로 보면 學年間 또는 家庭環境間에는 별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系列間, 大學間, 男學生과 女學生 사이에 높은 見解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自然系 學生들은 人文·社會系 學生들에 비하여 技術者나 一般勤勞者들이 더 높은 대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해양과학대학 학생인 경우 관료나 企業人에 대우와 존경의 比重을 둔 학생들은 한명도 없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師範大學 學生들도 企業人에 比重을 둔 학생은 전혀 없는 반면에 教育者가 가장 尊敬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學生들이 52.2%에 이르고 있다. 아마 이러한 反應은 師範大學 入學當時부터 教育者가 되겠다는 職業觀이 確立된 學生들이어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게 한다.

또한 男學生들에 비하여 女學生들이 教育者야말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짚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一般勤勞者가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다소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특히 全體學生들이 政治人, 官僚, 企業人 등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反應分布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其他(13.2%)에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은 農民 등이 의식되어 이들을 尊敬과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記入한 學生들이 많았다.

우리 社會에서 生活하는 모든 職業人들은 그 職業에 貴하고 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는 안될

表 < 3-B >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6
	구분							
직업인별	전체		160(7.0)	756(33.1)	191(8.4)	64(2.8)	30(1.3)	103(4.5)
	계열별	인문·사회	59(4.5)	453(34.3)	112(8.5)	42(3.2)	20(1.5)	70(5.3)
		자연	101(10.5)	303(31.4)	79(9.2)	22(2.3)	10(1.0)	33(3.4)
	대학	인문대	14(4.01)	96(27.4)	41(11.7)	11(3.1)	7(2.0)	20(5.7)
		사회과학대	25(5.1)	130(26.6)	47(9.6)	16(3.3)	3(0.6)	24(4.9)
	인별	사범대	19(3.6)	276(52.6)	31(5.9)	47(3.5)	9(1.5)	31(5.9)
		농대	30(9.1)	84(25.4)	28(8.5)	9(2.7)	4(1.2)	10(3.0)
	의대	해양과학대	23(15.0)	36(23.5)	12(7.8)	5(3.3)	2(1.3)	4(2.6)
		이공대	49(11.3)	134(30.9)	32(7.4)	6(1.4)	6(1.4)	14(3.2)
	대학	학년별	1년	68(7.6)	307(34.3)	80(8.9)	22(2.5)	14(1.6)
2년			48(7.0)	212(30.9)	54(7.9)	16(2.3)	9(1.3)	23(3.4)
3년			44(6.3)	237(33.7)	57(8.1)	26(3.7)	7(1.0)	46(6.5)
우대	성별	남	110(8.3)	385(29.0)	110(8.7)	37(2.8)	16(1.2)	45(3.4)
		여	50(5.2)	371(38.7)	81(8.5)	27(2.8)	14(1.5)	58(6.1)
		가환경정별	상	8(11.3)	19(26.8)	4(5.6)	3(4.2)	0(0.0)
		중	114(7.1)	558(34.7)	129(8.0)	47(2.9)	18(1.1)	73(4.5)
		하	38(6.3)	179(29.6)	58(9.6)	14(2.3)	12(2.0)	27(4.5)

하위영역	반응		7	8	9	10	11	Total	χ^2 -test
	구분								
직업인별	전체		23(1.0)	15(0.7)	114(5.0)	526(23.0)	303(13.3)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16(1.2)	7(0.5)	73(5.5)	282(21.4)	185(14.0)	1,319(100.0)	$\chi^2=46.0$
		자연	7(0.7)	8(0.8)	41(4.2)	244(25.3)	118(12.2)	966(100.0)	$df=10$ $P<0.001$
	대학	인문대	5(1.4)	2(0.6)	25(7.1)	86(24.6)	43(12.3)	350(100.0)	
		사회과학대	8(1.6)	5(1.0)	23(4.7)	121(24.7)	87(17.8)	489(100.0)	$\chi^2=230.56$
	인별	사범대	3(0.6)	0(0.0)	26(4.9)	63(11.9)	55(10.9)	529(100.0)	$df=50$
		농대	3(0.9)	5(1.5)	12(3.6)	109(32.9)	37(11.2)	331(100.0)	$P<0.001$
	의대	해양과학대	0(0.0)	0(0.0)	9(5.9)	32(20.9)	30(19.6)	153(100.0)	
		이공대	4(0.9)	3(0.7)	19(4.4)	115(26.6)	51(11.8)	433(100.0)	
	대학	학년별	1년	7(0.8)	5(0.6)	42(4.7)	202(22.5)	115(12.8)	896(100.0)
2년			5(0.7)	2(0.3)	40(5.8)	180(26.3)	96(14.0)	685(100.0)	$df=20$
3년			11(1.6)	8(1.1)	32(4.5)	144(20.5)	92(13.1)	704(100.0)	N.S
우대	성별	남	15(1.1)	11(0.8)	65(4.9)	344(25.9)	187(14.2)	1,327(100.0)	$\chi^2=48.27$
		여	8(0.8)	4(0.4)	49(5.1)	182(19.0)	114(11.9)	958(100.0)	$df=10$ $P<0.001$
		가환경정별	상	1(1.4)	0(0.0)	7(9.9)	20(28.2)	6(8.5)	71(100.0)
		중	16(1.0)	13(0.8)	87(5.4)	347(21.6)	208(12.5)	1,610(100.0)	$df=20$
		하	6(1.0)	2(0.3)	20(3.3)	159(26.3)	89(14.7)	604(100.0)	N.S

※ 1. 기술자 4. 정치인 7. 관료 10. 일반근로자
 2. 교육자 5. 의사 8. 기업인 11. 기타
 3. 학자 6. 성직자 9. 예술인

것이다. 따라서 職業人을 肉體的 勞動과 精神的 勞動에 從事하는 것으로 소위 二元的으로 區分하여 어느 쪽에 더 價値賦與를 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만 自身の 가진 能力을 最大로 하여 努力한 것만큼 待遇받고, 社會와 國家에 寄與한 것만큼 尊敬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부연하여 보는 것이다.

(3) 就業難

우리 大學 出身이 다른 大學 出身에 비하여 就業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 理由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質問을 했다.

表< 3-C >와 같이 全體 學生의 反應을 보면 고용가능업체의 地域的 限界(35.1%), 實力不足(23.5%), 當局의 就業을 위한 努力 不足(16.5%), 就業情報 不足(11.9%), 學緣이 없기 때문(9.8%), 기타(3.3%)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表< 3-C > 우리대학 출신이 타대학 출신에 비해 취업이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6	Total	χ^2 -test
	구분									
취업	전체		538(23.5)	271(11.9)	376(16.5)	224(9.8)	801(35.1)	75(3.3)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283(21.5)	165(12.5)	177(13.4)	142(10.8)	500(37.9)	52(3.9)	1,319(100.0)	$\chi^2=38.7$ $df=5$ $P<0.001$
		자연	255(26.4)	106(11.0)	199(20.6)	82(8.5)	301(31.2)	23(3.4)	966(100.0)	
	대학별	인문대	64(18.3)	44(12.6)	49(14.0)	27(7.7)	155(44.3)	11(3.1)	350(100.0)	$\chi^2=96.66$ $df=25$ $P<0.001$
		사회과학대	131(26.8)	70(14.3)	61(12.5)	53(10.8)	144(29.4)	30(6.1)	489(100.0)	
		사범대	108(20.4)	60(11.3)	70(13.2)	58(11.0)	220(41.6)	13(2.5)	529(100.0)	
		농대	82(24.8)	23(6.9)	82(24.8)	33(10.0)	106(32.0)	5(1.5)	331(100.0)	
해양과학대		42(27.5)	20(13.1)	29(19.0)	19(12.4)	37(24.2)	6(3.9)	153(100.0)		
학년별	이공대	111(25.6)	54(12.5)	85(19.6)	34(7.9)	139(32.1)	10(2.3)	433(100.0)		
	1년	201(22.4)	112(12.5)	123(13.7)	99(11.0)	335(37.4)	26(2.9)	896(100.0)	$\chi^2=16.93$ $df=10$ $N.S$	
	2년	181(26.4)	77(11.2)	119(17.4)	59(8.6)	225(32.8)	24(3.5)	685(100.0)		
3년	156(22.2)	82(11.6)	134(19.0)	66(9.4)	241(34.2)	25(3.6)	704(100.0)			
성별	남	352(26.5)	148(11.2)	247(18.6)	127(9.6)	403(30.4)	50(3.8)	1,327(100.0)	$\chi^2=44.51$ $df=5$ $P<0.001$	
	여	186(19.4)	123(12.8)	129(13.5)	97(10.1)	398(41.5)	25(2.6)	958(100.0)		
가환정별	상	18(25.4)	7(9.9)	22(31.0)	6(8.5)	17(23.9)	1(1.4)	71(100.0)	$\chi^2=15.44$ $df=10$ $N.S$	
	중	378(23.5)	200(12.4)	258(16.0)	153(9.5)	569(35.3)	52(3.2)	1,610(100.0)		
	하	142(23.5)	64(10.6)	96(15.9)	65(10.8)	215(35.6)	22(3.6)	604(100.0)		

- ※ 1. 자신의 실력부족
 2. 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3. 학교당국의 취업을 위한 노력부족
 4. 학연(學緣)이 없기 때문
 5. 고용가능업체의 지역적 한계
 6. 기타

이러한 反應을 區分別로 자세히 살펴보면 人文大學, 師範大學 學生들과 그리고 女學生들에게서 濟州地域에 고용가능업체나 기관이 不足한 때문에 就業이 힘들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就業不振의 原因으로서 自身の 實力 不足이라고 反應한 경우는 女學生보다 男學生에서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反應에서 특히 實力不足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 더욱 깊은 關心을 두어 分析하여 보면 實力의 不足이 「努力不足」이란 솔직한 表現으로 대신하는 것이 옳을 성 싶다. 왜냐하면 就業을 위한 준비는 大學 3, 4 學年에서 이뤄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쉬우나 사실은 大學 4 個年 全課程에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高等學校 時節의 努力 如何가 大學과 學科의 選擇에 크게 影響되는 것이고 보면 就業의 準備는 高等學校 과정까지 關係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長期間에 걸쳐 計劃하고 努力하고 準備한 결과가 就業과 쉽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地方大學인 濟州大學을 卒業했다는 理由만으로 就業이 힘들다는 생각은 자기변명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물론 濟州地域에 就業할 수 있는 機關이나 業體가 他地域에 비해서 充分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就業의 競爭은 같은 처지, 같은 또래들의 地域 競爭이 아니라 全國的 競爭임을 깊이 認識한다면 濟大生の 취업난에 대한 견해는 다소 달라질 것이다.

最近에 와서 大學 卒業者 數에 비하여 就業할 수 있는 곳은 相對的으로 적다. 특히 요즘에 大學生의 就業을 위한 對策은 全國 어느 大學에서든지 共通의 關心事로 골똘하고 있다. 大學 나름대로 취업정보의 신속한 수집과 提供, 취업을 위한 교과의 特講 등 多角의 努力이 경주되고 있는 實情이다.

4. 幸福觀

(1) 幸福의 要素

人間의 幸福에 있어서 가장 重要視되는 要素는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했다.

全體 68.8%의 學生들이 自己生活에 充實하는 데에 人間의 幸福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理想을 追求하는 것이 幸福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學生들이 14.1%에 이른다. 그外 經濟的 能力, 信仰生活, 社會的 地位 順으로 다소의 학생들이 反應을 보이고 있음을 表 <4-A>에서 찾아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反應들은 系列間 또는 大學間에 큰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學年間과 男女學生間에는 높은 有意性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本 問項에서의 反應을 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理想이 追求된 그 自體를 幸福의 要素라고 보는 學生들은 高學年에서보다 低學年에 갈수록 다소 높은 경향을 띠고 있으며 經濟的 能力 如何가 幸福에 關係된다고 보는 學生들은 低學年보다 高學年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性別로 보면 男學生에 비하여 女學生들이 幸福은 自己生活을 充實하는 姿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에 理想追求나 經濟的 能力은 女學生에 비해 男學生들이 다소 높게 比重을 두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家庭環境別로 보면 家庭生活程度가 높은 學生일수록 理想을 追求하여 幸福을 찾으려 하고 있음은 充分히 理解되는 見解라고 보아진다.

表< 4 - C >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주로 무엇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가?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χ^2 -test
	구분								
행복에 의영향	전체		1,180(51.6)	645(28.2)	321(14.0)	82(3.6)	57(2.5)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683(51.8)	364(27.6)	197(14.9)	38(3.9)	33(2.8)	1,319(100.0)	$\chi^2=7.76$ $df=4$
		자연	497(51.4)	281(29.1)	124(12.8)	44(4.6)	20(2.1)	966(100.0)	N.S
	대학별	인문대	177(50.6)	98(28.0)	51(14.6)	14(4.0)	10(2.9)	350(100.0)	
		사회과학대	259(53.0)	132(27.0)	68(13.9)	11(2.2)	19(3.9)	489(100.0)	$\chi^2=18.99$
		사범대	268(50.7)	148(28.0)	80(15.1)	20(3.8)	13(2.5)	529(100.0)	$df=20$
		농대	169(51.1)	99(29.9)	45(13.6)	12(3.6)	6(1.8)	331(100.0)	N.S
해양과학대		81(52.9)	42(27.5)	25(16.3)	2(1.3)	3(2.0)	153(100.0)		
이공대	226(52.2)	126(29.1)	52(12.0)	23(5.3)	6(1.4)	433(100.0)			
영향	학년별	1년	466(52.0)	264(29.5)	112(12.5)	31(3.5)	23(2.6)	896(100.0)	$\chi^2=13.15$
		2년	366(53.4)	189(27.6)	90(13.1)	19(2.8)	21(3.1)	685(100.0)	$df=8$
		3년	348(49.4)	192(27.3)	119(16.9)	32(4.5)	13(1.8)	704(100.0)	N.S
향	성별	남	702(52.9)	353(26.6)	182(13.7)	55(4.1)	35(2.6)	1,327(100.0)	$\chi^2=7.18$ $df=4$
		여	478(49.9)	292(30.5)	139(14.5)	27(2.8)	22(2.3)	958(100.0)	N.S
	가환경정별	상	34(47.9)	27(38.0)	9(12.7)	1(1.4)	0(0.0)	71(100.0)	$\chi^2=12.82$
중		860(53.9)	438(27.2)	216(13.4)	55(3.6)	38(2.4)	1,610(100.0)	$df=8$	
하		286(47.9)	180(29.8)	96(15.9)	23(3.8)	19(3.1)	604(100.0)	N.S	

- ※ 1. 자신의 창의력과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 2. 자신의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 여하에 달려있다.
- 3. 타고난 재능, 물려받은 유산, 태어난 가문 등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 4. 타고난 운수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 5. 기타

(4) 存在意識

自己自身이야말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所重하고 價値있는 存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따라서 사람은 存在意識이 없을 때 것처럼 허무하고 불행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幸福觀念의 한 영역으로 자신이 현재 存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質問을 했다.

全體 學生의 反應을 表< 4 - D >에서 보는 바처럼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다 (35.3%), 그저 그렇다 (21.2%), 매우 가치있고 자랑스럽다 (20.9%), 무의미하다 (12.2%), 절망에 차있다 (10.9%)의 순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을 다시 분석·종합해 보면 과반수의 학생들이 自身의 存在에 대한 肯定的 價値를 인식하는 것으로 느껴지나 상당수의 학생이 「그저 그렇다」고 반응하고 있어서 자신의 삶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고 보아진다. 더구나 자신의 存在 自體가 무의미하고, 절망에 차있다는 學生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서 오늘의 大學教育에 커다란

5. 倫理道德觀

(1) 倫理道德 風潮

倫理道德觀의 첫째 領域으로 우리 社會에서 고쳐져야 할 道德·倫理 중 가장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質問했다.

全體 學生의 反應을 보면 公衆道德 (36.3%), 企業倫理 (26.7%), 男女關係 (16.9%), 師弟關係 (9.5%), 家族關係 (4.7%), 交友關係 (2.1%)의 順으로 表< 5-A>에서 보여 주고 있다.

表< 5-A> 우리 사회에 고쳐져야 할 윤리도덕은?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6	7	Total	x ² -test	
	구분											
윤리	전체		829(36.3)	609(26.7)	387(16.9)	107(4.7)	47(2.1)	216(9.5)	90(3.9)	2,285(100.0)		
	계열별	인문·사회	454(34.4)	340(25.8)	236(17.9)	68(5.2)	30(2.3)	127(9.6)	64(4.9)	1,319(100.0)	x ² =14.4 df=6 P<0.05	
		자연	375(38.8)	269(27.8)	151(15.6)	39(4.0)	17(1.8)	89(9.2)	26(2.7)	966(100.0)		
	도	대	인문대	113(32.3)	92(26.3)	68(19.4)	22(6.3)	9(2.6)	39(11.1)	7(2.0)	350(100.0)	x ² =57.60 df=30 P<0.005
			사회과학대	172(35.2)	130(26.6)	79(16.2)	22(4.5)	12(2.5)	42(8.6)	32(6.5)	489(100.0)	
		학	사범대	189(35.7)	124(23.4)	96(18.1)	32(6.0)	10(1.9)	55(10.4)	23(4.3)	529(100.0)	
			농대	140(42.3)	102(30.8)	55(16.6)	4(1.2)	4(1.2)	17(5.1)	9(2.7)	331(100.0)	
해양과학대			64(41.8)	34(22.2)	23(15.0)	8(5.2)	3(2.0)	13(8.5)	8(5.2)	153(100.0)		
적	이공대	151(34.9)	127(29.3)	66(15.2)	19(4.4)	9(2.1)	50(11.5)	11(2.5)	433(100.0)			
		1년	331(36.9)	214(23.9)	169(18.9)	44(4.9)	20(2.2)	83(9.3)	35(3.9)	896(100.0)	x ² =29.76 df=12 P<0.005	
		2년	254(37.1)	206(30.1)	115(16.8)	17(2.5)	7(1.0)	60(8.8)	26(3.8)	685(100.0)		
3년	244(34.7)	189(26.8)	103(14.6)	46(6.5)	20(2.8)	73(10.4)	29(4.1)	704(100.0)				
풍	성	남	514(38.7)	356(26.8)	188(14.2)	47(3.5)	31(2.3)	130(9.8)	61(4.6)	1,327(100.0)	x ² =33.49 df=6 P<0.001	
		여	315(32.9)	253(26.4)	199(20.8)	60(6.3)	16(1.7)	86(9.0)	29(3.0)	958(100.0)		
조	가	상	27(38.0)	14(19.7)	17(23.9)	2(2.8)	1(1.4)	9(12.7)	1(1.4)	71(100.0)	x ² =14.67 df=12 N.S	
		중	586(36.4)	434(27.0)	277(17.2)	81(5.0)	33(2.0)	144(8.9)	55(3.4)	1,610(100.0)		
		하	216(35.3)	161(26.7)	93(15.4)	24(4.0)	13(2.2)	63(10.4)	34(5.6)	604(100.0)		

※ 1. 공중도덕 3. 남녀관계 5. 교우관계 7. 기타
2. 기업윤리 4. 가족관계 6. 사제관계

이를 各 區分別로 자세히 살펴보면 自然系 學生들이 人文·社會系 學生들보다 公衆道德의 심각성에 더 높게 比重을 두고 있으며 또한 女學生보다는 男學生들이 이에 다소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男女關係가 道德·倫理의 심각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學生들은 自然系에 비하여 人文·社會系 學生들이, 高學年에 비해 低學年일수록, 男學生보다 女學生에 있어서 다소 높게 반응하고 있음도 특징이 되고 있다.

사람이 社會的 關係에 있어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道理가 곧 道德 또는 倫理라는 概念에 입각해서 本表를 다시 檢討하면 특히 公衆道德, 企業倫理, 男女關係 等に 있어 그 行爲나 實踐에 마땅히 正邪善惡을 考慮하여 바람직하게 신장되고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本表에서 보듯이 師弟關係의 倫理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이 생각되는 學生들이 거의 10%에 이른다. 물론 이러한 見解는 學生 自身の 經驗에서 오는 結果가 아닌 스승의 遵待와 불경한 學生을 나무라는 見解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다른 여러 局面보다 비록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다소라도 이러한 反應이 나타나게 한 현재의 敎育상황은 國家의 百年大計를 위해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더욱 生産力 있고 創造的 道德·倫理意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2) 行動準據

사람이 平素 行動할 때 가장 重要하게 의식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았다.

전체 학생의 73.3%가 良心을 가장 重要하게 의식하며 행동한다고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結果로써 社會倫理, 道德, 法, 慣習 등은 良心 이후의 행동준거로 삼는 것같이 생각되어 매우 바람직한 價値意識으로 느껴지게 한다.

表 < 5-B > 평소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의식되는 기준은 ?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6	Total	x ² -test
	구분									
행동	전체		1,675(73.3)	226(9.9)	157(6.9)	50(2.2)	77(3.4)	100(4.4)	2,285(100.0)	
	계양대학	인문·사회	962(72.9)	130(9.9)	85(6.4)	31(2.4)	48(3.6)	63(4.8)	1,319(100.0)	x ² =3.07 df=5 N.S
		자연	713(73.8)	96(9.9)	72(7.5)	19(2.0)	29(3.0)	37(3.8)	966(100.0)	
	동별	인문대	256(73.1)	39(11.1)	23(6.6)	11(3.1)	10(2.9)	11(3.1)	350(100.0)	
		사회과학대	362(74.0)	45(9.2)	25(5.1)	9(1.8)	21(4.3)	27(5.5)	489(100.0)	x ² =16.82
		사범대	391(73.9)	51(9.6)	41(7.8)	11(2.1)	14(2.6)	21(4.0)	529(100.0)	df=25
		농대	239(72.2)	36(10.9)	24(7.3)	4(1.2)	11(3.3)	17(5.1)	331(100.0)	N.S
해양과학대		112(73.2)	17(11.1)	8(5.2)	3(2.0)	6(3.9)	7(4.6)	153(100.0)		
준	이공대	315(72.7)	38(8.8)	36(8.3)	12(2.8)	15(3.5)	17(3.9)	433(100.0)		
	학년별	1년	658(73.4)	99(11.0)	54(6.0)	18(2.0)	28(3.1)	39(4.4)	896(100.0)	x ² =7.39
		2년	515(75.2)	56(8.2)	46(6.7)	14(2.0)	24(3.5)	30(4.4)	685(100.0)	df=10
3년		502(71.3)	71(10.1)	57(8.1)	18(2.6)	25(3.6)	31(4.4)	704(100.0)	N.S	
거	성별	남	973(73.3)	117(8.8)	88(6.6)	37(2.8)	52(3.9)	60(4.5)	1,327(100.0)	x ² =12.14
		여	702(73.3)	109(11.4)	69(7.2)	13(1.3)	25(2.6)	40(4.2)	958(100.0)	df=5 P<0.05
가환정별	상	상	51(71.6)	11(15.5)	5(7.0)	2(2.8)	1(1.4)	1(1.4)	71(100.0)	x ² =6.76
		중	1,178(73.2)	161(10.0)	114(7.1)	32(2.0)	54(3.4)	71(4.3)	1,610(100.0)	df=10
		하	446(73.8)	54(8.9)	38(6.3)	16(2.6)	22(3.6)	28(4.6)	604(100.0)	

※ 1. 양심 3. 도덕 5. 관습
 2. 사회윤리 4. 법 6. 기타

또한 이러한 反應들을 表〈5-B〉에서 보면 系列間, 大學間, 學年 사이에 별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大部分의 學生들은 確固한 意識이나 信念으로 良心에 따라 行動하고 있다고 더욱 믿어지게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西歐의 個人主義, 合理主義의 思想이 流入되면서 東邦禮儀之國의 美風良俗이나 倫理意識이 점차 퇴색되어 왔다. 더구나 個人的 利益을 위해서는 法망을 교묘히 피하고, 傳來되어 오는 慣習이나 道德 等の 社會規範을 거의 無視한 채 行動하는 事例들이 흔히 있었다. 심지어는 良心으로 살면 굶어 죽는다는 그릇된 생각이 일부 계층이나 일부 社會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正義의 根源은 良心이라고 한다. 人間의 意識이나 行動에서 惡을 피하고 善을 追求하며, 거짓을 버리고 참을 이룩하려는 社會는 良心이 支配하는 社會로 成熟되어야 한다. 어디서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고 正義롭게 行動하는 것은 社會나 國家發展을 위해 매우 重要的 것이고, 東西古來 할 것 없이 生活의 根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평소 행동의 準거로써 무엇보다 良心이 가장 重要하게 강조· 논의되는 점에서 本表의 反應결과를 다시 음미하면 本校의 많은 學生들은 良心에 準거하여 행동하는 가장 바람직한 價値意識과 行動意識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게 한다.

(3) 傳統倫理

倫理道德觀의 마지막 問項으로 祖上을 崇拜하는 傳統的 思想이나 어버이를 섬기는 孝道에 대한 見解를 물어보았다.

全體學生의 反應을 보면 이러한 思想이나 慣習은 永遠히 傳承되어야 하고 (49.9%), 또한 現實的이며 實用的으로 適用되어야 한다 (43.5%)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學生이 集約되고 있다.

이렇게 集約된 見解들을 各 區分別로 보면 系列, 大學, 學年, 家庭生活程度 間에는 별 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男女 學生間에는 統計적으로 높은 有意性이 인정되고 있다. 即 男學生中의 51.5%의 學生들이 이러한 전통윤리는 영원히 傳承되어야 할 美風良俗이라는 높은 見解를 보이는 反面에 女學生들은 47.4%의 비율로 다소 낮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女學生의 48%의 學生들이 崇祖思想이나 孝親의 精神은 現實的이며 實用的으로 適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男學生들은 41%의 비율로 女學生에 비해 저조한 反應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매우 극소수의 學生들이긴 하지만 관습이나 人倫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3.3%)와 고루한 생활양식이며 구차스러운 구속인 것으로 (2.0%) 생각하는 學生들도 더러 있음을 表〈5-C〉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미 前 問項에서도 提論한 것처럼 最近 지구상의 모든 國家는 國家간 새로운 文化가 넓게 交流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첨단 科學技術의 응용과 高度의 産業化 社會로 變化됨에 따라 우리

社會는 多價値가 共存하는 社會로 變貌하고 있다. 變貌하는 社會에서 의當히 價値應用도 달
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急進的 생각이나 時代精神에 살고 있는 젊은 世代들이 앞으로 傳
統倫理에 대한 價値判斷, 價値應用은 어떠한 形態로 變化할는지 쉽게 定向하기는 힘들다.

表 < 5 - C > 尙상을 숭배하는 전통적 사상이나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에 대한 생각은?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x ² -test
	구분	반응							
전통	전체	전	1,137(49.8)	1,004(43.9)	75(3.3)	45(2.0)	24(1.1)	2,285(100.0)	
		체							
	계열별	인문·사회	633(48.0)	597(45.3)	43(3.3)	31(2.4)	15(1.1)	1,319(100.0)	x ² =5.73 df=4 N.S
		자연	504(52.2)	407(42.1)	32(3.3)	14(1.4)	9(0.9)	966(100.0)	
	대학	인문대	191(54.6)	137(39.1)	10(2.9)	9(2.6)	3(0.9)	350(100.0)	
		사회과학대	219(44.8)	224(45.8)	25(5.1)	13(2.7)	8(1.6)	489(100.0)	x ² =25.57
		사범대	257(48.6)	250(47.3)	10(1.9)	8(1.5)	4(0.8)	529(100.0)	df=20
		농대	164(49.5)	147(44.4)	13(3.9)	3(0.9)	4(1.2)	331(100.0)	N.S
		해양과학대	84(54.9)	60(39.2)	5(3.3)	3(2.0)	1(0.7)	153(100.0)	
	윤리	이공대	이공대	222(51.3)	186(43.0)	12(2.8)	9(2.1)	4(0.9)	433(100.0)
1년			438(48.9)	395(44.1)	35(3.9)	16(1.8)	12(1.3)	896(100.0)	x ² =14.32
2년			338(49.3)	315(46.0)	13(1.9)	17(2.5)	2(0.3)	685(100.0)	df=8
성별	남	남	683(51.5)	544(41.0)	54(4.1)	33(2.5)	13(1.0)	1,327(100.0)	x ² =18.53
		여	454(47.4)	460(48.0)	21(2.2)	12(1.3)	11(1.1)	958(100.0)	df=4 P<0.001
		가환경정별	상	36(50.7)	30(42.3)	2(2.8)	3(4.2)	0(0.0)	71(100.0)
정별	중	중	809(50.2)	705(43.8)	55(3.4)	27(5.7)	14(0.9)	1,610(100.0)	df=8
		하	292(48.3)	269(44.5)	18(3.0)	15(2.5)	10(1.7)	604(100.0)	N.S

- ※ 1. 영원히 전승되어야 할 미풍양속이다.
- 2.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3. 관습이나 인륜에 벗어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 4. 고루한 생활양식이며 구차스러운 구속이다.
- 5. 기 타

그러나 現在로써 우리 社會에 祖上이나 父母를 섬기는 일은 人倫의 가장 根本이 되는 德
目이다. 그러므로 崇祖思想이나 孝親의 精神은 時空을 초월해서 崇高한 精神과 아름다운 風
俗으로 오래 이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본다.

6. 異性觀

(1) 男女愛情

本 問項에서는 將來 인생을 같이할 배우자의 선택기준을 물어보았다.

表 < 6 - A > 일생을 같이할 배우자의 선택 기준은 ?

하위영역	반응		1	2	3	4	5	6
	구분							
남	전 체		37(1.6)	32(1.4)	76(3.3)	738(32.3)	63(2.8)	882(38.6)
	계별	인문·사회	21(1.6)	19(1.4)	48(3.6)	381(28.9)	29(2.2)	563(42.7)
		자연	16(1.7)	13(1.3)	28(2.9)	357(37.0)	34(3.5)	319(33.0)
	대학별	인문대	7(2.0)	5(1.4)	19(5.4)	94(26.9)	7(2.0)	158(45.1)
		사회과학대	8(1.6)	9(1.8)	13(2.7)	149(30.5)	8(1.6)	198(40.5)
		사범대	6(1.1)	5(0.9)	17(3.2)	157(29.7)	14(2.6)	221(41.8)
		농대	9(2.7)	4(1.2)	12(3.6)	101(30.5)	16(4.8)	122(36.9)
해양과학대		4(2.6)	2(1.3)	8(5.2)	51(33.3)	4(2.6)	49(32.0)	
이공대	3(0.7)	7(1.6)	7(1.6)	186(43.0)	14(3.2)	134(30.9)		
나이별	1년	17(1.9)	13(1.5)	36(4.0)	297(33.1)	23(2.6)	349(39.0)	
	2년	8(1.2)	12(1.8)	14(2.0)	233(34.0)	21(3.1)	266(38.8)	
	3년	12(1.7)	7(1.0)	26(3.7)	208(29.5)	19(2.7)	267(37.9)	
성별	남	25(1.9)	18(1.4)	40(3.0)	468(35.3)	44(3.3)	444(33.5)	
	여	12(1.3)	14(1.5)	36(3.8)	270(28.2)	19(2.0)	438(45.7)	
	가환경정별	상	5(7.0)	4(5.6)	0(0.0)	25(35.2)	5(7.0)	19(26.8)
	중	23(1.4)	21(1.3)	45(2.8)	524(32.5)	41(2.5)	644(40.0)	
	하	9(1.5)	7(1.2)	31(5.1)	189(31.3)	17(2.8)	219(36.3)	

하위영역	반응		7	8	9	10	Total	χ^2 -test
	구분							
남	전 체		192(8.4)	154(6.7)	36(1.6)	75(3.3)	2,285(100.0)	
	계별	인문·사회	97(7.4)	93(7.1)	19(1.4)	49(3.7)	1,319(100.0)	$\chi^2 = 35.9$
		자연	95(9.8)	61(6.3)	17(1.8)	26(2.7)	966(100.0)	$df = 9$ $P < 0.001$
	대학별	인문대	22(6.3)	24(6.9)	4(1.1)	10(2.9)	350(100.0)	
		사회과학대	40(8.2)	31(6.3)	8(1.6)	25(5.1)	489(100.0)	$\chi^2 = 95.34$
		사범대	36(6.8)	49(9.3)	8(1.5)	16(3.0)	529(100.0)	$df = 45$
		농대	40(12.1)	16(4.8)	5(1.5)	6(1.8)	331(100.0)	$P < 0.001$
해양과학대		20(13.1)	6(3.9)	5(3.3)	4(2.6)	153(100.0)		
이공대	34(7.9)	28(6.5)	6(1.4)	14(3.2)	433(100.0)			
나이별	1년	71(7.9)	49(5.5)	13(1.5)	28(3.1)	896(100.0)	$\chi^2 = 28.5$	
	2년	65(9.5)	38(5.5)	12(1.8)	16(2.3)	685(100.0)	$df = 18$	
	3년	56(8.0)	67(9.5)	11(1.6)	31(4.4)	704(100.0)	$N.S$	
성별	남	134(10.1)	84(6.3)	31(2.3)	39(2.9)	1,327(100.0)	$\chi^2 = 60.61$	
	여	58(6.1)	70(7.3)	5(0.5)	36(3.8)	958(100.0)	$df = 9$ $P < 0.001$	
	가환경정별	상	1(1.4)	5(7.0)	3(4.2)	4(5.6)	71(100.0)	$\chi^2 = 58.28$
	중	135(8.4)	112(7.0)	23(1.4)	42(2.6)	1,610(100.0)	$df = 18$	
	하	56(9.3)	37(6.1)	10(1.7)	29(4.0)	604(100.0)	$P < 0.001$	

※ 1. 가문 3. 경제력 5. 건강 7. 교양 및 지성 9. 용모
 2. 학벌 4. 사랑 6. 인간성 8. 성격 10. 기타

全體學生의 대부분은 表〈6-A〉에서 처럼 人間性(38.6%)과 사랑(32.3%)에 높은 比重을 두어 배우자의 선택기준을 삼고 있다.

이러한 反應은 學年間에 별 差異가 인정되지 않으나 系列間, 大學間, 性別, 家庭環境別로 모두 高度의 有意性이 인정되고 있다.

이 問項의 反應을 좀더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女學生인 경우 男學生에 비하여 人間性에 높은 比重을 두는 反面에 사랑에 대한 比重은 女學生이 다소 낮게 反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人文·社會系列 學生들이 自然系列 學生들보다 人間性에 높은 比重을 두는 反面에 사랑에 比重은 다소 낮게 反應하고 있다. 公교롭게 女學生과 人文·社會系列 學生들이 비슷한 傾向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實은 人文·社會系列 學生들은 自然系列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女學生數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外 家庭環境에 따른 反應程度를 보면 家庭環境이 좋은 편인 學生일수록 “사랑”에 선택기준을 높이 두고 있으며 학벌 기준도 相對的으로 높이는 傾向을 띠고 있으나 이와는 反面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편인 學生일수록 경제력에 다소 높은 比重으로 배우자 선택 기준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異性交際

만일 현재 異성과 交際한다면 그 目的은 어디에 두겠느냐고 質問했다.

全體學生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겠다(51.2%), 결혼과 교제는 別個의 것이다(19.9%), 結婚을 目的으로 사귀겠다(18.5%), 其他(10.5%)의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各 區分別로 살펴보면 結婚을 目的으로 사귀겠다는 學生들은 人文·社會系列 學生들보다는 自然系列 學生들이, 大學別로는 師範大, 農大, 海洋科學大 學生들이, 女學生보다는 男學生들이 多少 높게 反應하고 있다. 특히 이 應答 內容에서 低學年보다 高學年에 갈수록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어서 高學年의 경우 이러한 反應은 結婚適齡期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되게 한다.

異성과의 交際를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고 싶다는 學生들도 역시 人文·社會계열 學生들보다 自然系列 學生들이 다소 높게 反應하고 있으며 특히 理工大學 學生들이 이러한 見解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學年別로는 低學年에서가 高學年에 비하여 높은 頻度를 보이고 있으며 男學生들보다는 女學生들이 이러한 생각을 다소 높게 하고 있다. 그 外 結婚과 交際는 別個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는 學生들은 人文·社會系列 學生들이 相對的으로 높게 反應하고 있음도 나타내 주고 있다.

最近 女性의 能力이 急速度로 伸長되고 또한 地位가 向上되면서 過去의 小極的이고 靜的인 異性觀에서 積極的이고 비교적 開放的인 價値社會로 변모하고 있다. 그 한 例로 過去와는 달리 점차 男女共學을 選好해지는 傾向도 價値變化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全體學生의 反應에서 女性은 무엇보다 婦德을 쌓고 여성다워야 한다는 데에 36.5%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反應들이 學年別로는 별 差異가 認定되지 않으나 系列, 大學, 男女學生, 家庭環境 間에는 모두 有意義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表〈6-C〉 남녀 평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하위 영역	반응		1	2	3	4	5	Total	χ^2 -test		
	구분										
남	전체		348(15.2)	587(25.7)	835(36.5)	400(17.5)	115(5.0)	2,285(100.0)			
	제일	인문·사회 자연	251(19.0)	363(27.5)	415(31.5)	226(17.1)	64(4.9)	1,319(100.0)	$\chi^2=56.1$ $df=4$ $P<0.001$		
			97(10.0)	224(23.2)	420(43.5)	174(18.0)	51(5.2)	966(100.0)			
	대학	인문대 사회과학대	72(20.6)	117(33.4)	90(25.7)	63(18.0)	8(2.3)	350(100.0)	$\chi^2=138.76$ $df=20$ $P<0.001$		
			81(16.6)	109(22.3)	182(37.2)	88(18.0)	29(5.9)	489(100.0)			
	녀	별	사범대 농대	114(21.6)	159(30.1)	141(26.7)	84(15.9)	31(5.9)	529(100.0)	$P<0.001$	
25(7.6)				65(19.6)	173(52.3)	51(15.4)	17(5.1)	331(100.0)			
평	년	해양과학대 이공대	11(7.2)	27(17.6)	77(50.3)	27(17.6)	11(7.2)	153(100.0)	$\chi^2=9.85$ $df=8$ $N.S$		
			45(10.4)	110(25.4)	172(39.7)	87(20.1)	19(4.4)	433(100.0)			
등	정	성별	126(14.1)	233(26.0)	352(39.3)	143(16.0)	42(4.7)	896(100.0)	$\chi^2=331.12$ $df=4$ $P<0.001$		
			115(16.8)	168(24.5)	231(33.7)	130(19.0)	41(6.0)	685(100.0)			
가	환	경	107(15.2)	186(26.4)	252(35.8)	127(18.0)	32(4.5)	704(100.0)	$\chi^2=20.06$ $df=8$ $P<0.01$		
			정	상	106(8.0)	238(17.9)	654(49.3)	253(19.1)		76(5.7)	1,327(100.0)
					242(25.3)	349(36.4)	181(18.9)	147(15.3)		39(4.1)	958(100.0)
정	정	중	9(12.7)	17(23.9)	28(39.4)	16(22.5)	1(1.4)	71(100.0)	$df=8$ $P<0.01$		
			하	상	257(16.0)	430(26.7)	590(36.6)	265(16.5)		68(4.2)	1,610(100.0)
					82(13.6)	140(23.2)	217(35.9)	119(19.7)		46(7.6)	604(100.0)

- ※ 1. 여성의 능력개발이 우선 앞서야 한다.
- 2. 남아를 선호하는 전통사상이 사라져야 한다.
- 3. 여성은 무엇보다 부덕을 쌓고 여성다워야 한다.
- 4.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이 구분되는 한 평등은 불가능하다.
- 5. 기타

특히 高度의 有意性을 보이고 있는 男女別 見解差異를 보면 女學生인 경우 女性의 能力開發(25.3%)과 男兒選好思想의 退潮(36.4%) 등 女性의 能力이나 地位向上을 통해 男女平等을 追求하고 있고, 男學生인 경우는 女性은 무엇보다 婦德을 쌓고 여성다워야 한다(49%)와 男女의 能力이 區分되는 한 平等은 不可能하다(19.1%)는 側面에 關心이 집중되어 男女學生 서로가 매우 對照的인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우리 社會에는 男兒를 選好하는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과거 封建社會의 男性 中心의 支配되어 왔던 男尊女卑思想이 오늘날에는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現在도 우리 社會에는 男性과 女性은 서로 對等한 關係가 아니라 主從的 關係로 평가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러한 인습적 평가 경향은 女性이라는 울타리 속에 꼭 잡혀 있어야 하는 우리의 傳統的 生活樣式이나 또는 女性의 社會的 機能에서 주는 影響이 작용되는 것으로도 보아지나 설사 男性과 똑같은 能力과 活動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女性이기 때문에”라는 生得的 條件을 벗어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하겠다.

人間은 本來 누구나 다 平等하고 잘 살 權利가 있다는 價値觀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더구나 같은 能力을 가지고 똑같은 活動을 하고 있음에도 不平等하게 대우를 받거나 從屬的 관계로만 느껴진다면 여기에 不滿은 있게 마련이다. 女性이라는 理由로 묶여 行動半徑에 限界를 느끼고 또한 自身의 能力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은 물론, 일상 生活에서 소외감이나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이에 反撥하고 나설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最近 世界 도처에서 女性解放論 또는 女權伸長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 社會에서도 家族制度의 개혁, 法的 保護 및 能力開發 등 女性의 地位向上을 위한 努力이 경주되고 있는 此際에 男女關係에 대한 傳統과 因襲的 觀念으로 「女性은 女性일 수 밖에 없다」는 격의 兪무를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社會의 男性과 女性은 서로가 침범할 수 없는 固有의 機能을 높이 尊待하면서 서로는 같은 人格體로서 對等的 關係가 形成되어야 한다는 價値觀의 定立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IV. 要 約

本校 在學生 2,285 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6個의 價値觀 領域의 見解를 간단히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國家觀 領域

國家의 發展을 위해서 무엇보다 意識이 近代化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國家安定的 要因은 友邦國의 支援과 保護의 德도 있기 때문이라고 느끼고 있는 있으나 주로 國民 各者가 맡은 일에 充實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國家가 위기라고 생각되면 學業을 中斷하고 戰爭터에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護國意識을 가진 學生들이 대부분이며, 國家와 個人의 關係에 있어서는 國家發展을 위해서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다소 희생되는 것은 不可避하게 느끼면서도 強要에 의해서 自由와 權利가 留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學生들이 많다.

따라서 現 時局에 대한 學生들의 主張이나 行動에 있어서 主張에는 다소 肯定的인 見解를 보이면서도 行動만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다.

2. 社會觀 領域

우리 社會에 반영되고 있는 弊害 中에서 무엇보다도 부정부패와 이기주의적 경향이 고쳐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배금주의, 빈부차이, 퇴폐주의 등도 社會의 심각한 弊害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에 貧富의 差異를 가져오는 原因은 自由經濟體制에서 不均衡 分配要因의 認識은 안된 채 分配政策이나 經濟政策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社會에서 보다더 地位가 向上되려면, 소위 出世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實力과 能力」을 길러야 한다는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며, 또한 現實에 適應하면서 自身의 일에 充實하는 사람일수록 훌륭한 民主市民이라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그 外 他地域 사람이 參與한 濟州地域 開發에 있어서도 순수한 開發에 目的을 두었다면 찬성하는 전이나 濟州人의 生計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否定的 立場을 취하는 學生이 더러 있음도 주목할 일이다.

3. 職業觀 領域

職業選好 所望은, 취미와 소질을 살릴 수 있는 職業을 과반수의 學生이 원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社會에서 가장 尊敬과 대우를 받아야 할 職業人은 教育者로 反應하고 있다. 또한 濟大生の 就業難 原因을 첫째로 雇傭可能 業體의 地域的 限界性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實力不足, 對策不足 등도 비교적 높게 지적하고 있어서 積極적인 대책강구가 要望되게 한다.

4. 幸福觀 領域

大部分의 學生들이 人間의 幸福은 自身의 일을 充實히 하는 데서 찾아야 하고 幸福은 人格의 修養과 健康한 生活에 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幸福이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自身의 創意력과 努力 如何에 따라 幸福할 수 있다는 開拓指向的인 價値觀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現在 自身이 存在하고 있다는 事實은 매우 감사하고 즐거운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肯定的 價値觀을 가지고 있는 學生들이 많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5. 倫理道德觀 領域

우리 社會에서 고쳐져야할 倫理道德 風潮로서 公衆道德과 企業倫理를 들고 있다. 또한 自身이 平素 行動할 때 가장 重要하게 意識되는 것은 法이나 慣習 등이 아니라 ‘良心’이라고 확고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傳統倫理에 있어서도 崇祖思想이나 孝親의 精神은 영원히 傳承

되어야 하지만 現實적이고 實用的으로 適用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見解를 보이고 있다.

6. 異性觀 領域

배우자의 選擇基準은 人間性和 사랑에 높은 比重을 두고 있으며 女學生은 人間性을, 男學生은 사랑에 다소 높은 比重을 두고 있음은 特徵으로 여겨진다.

또한 異性和 交際한다면 結婚目的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귀겠다는 생각이 支配的이다. 따라서 男女平等에 대한 見解는 가장 많은 學生들이 「女性은 婦德을 쌓고 女性다워야 한다」는 데 見解를 같이하고 있으나 男女平等의 先行條件으로 女性의 能力開發이 우선되어야 하고, 우리 社會에 아직도 남아있는 男兒選好思想이 退潮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특히 女學生들이 많이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金俊秀外, 大學生의 意識構造 및 價値觀에 대한 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慶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 8, 20~51.
- 金仁子外, 大學生의 職業觀과 經濟的 價値觀에 關한 豫備의 研究, 人間理解, 西江大學校 生活相談室, 1979, Vol. 1, 63~85.
- 金泰吉, 韓國大學生의 價値觀-儒教思想과 比較研究-, 一朝關, 1983.
- 徐昌源外, 忠南大 學生들의 價値觀에 關한 研究, 學生生活研究, 忠南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5, Vol. 15, 27~40.
- 孫香淑外, 梨花大生의 價値觀 調查, 學生生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2, Vol. 18, 1~30.
- 吳世德, 大學生의 國家·社會觀에 關한 調查 研究, 慶熙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3, 創刊號, 15~44.
- 吳弼浩外, 梨花女大生의 價値觀 調查(II), 學生生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Vol. 22, 5~45.
- 李永鎬, 韓國人的 價値觀, 一志社, 1977.
- 李效再, 韓國의 社會構造와 文化의 形態, 教育和 國家發展, 教育出版社, 1985, 179~220.
- 全禮華, 認知的 發達接近과 價値明瞭化 接近에서의 價値教育, 學生生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4, Vol. 20, 25~38.
- 鄭範謨, 價値觀과 教育, 培英社, 1984.
- 黃應淵, 大學生의 價値觀 및 關聯된 變因에 關한 研究, 益文社, 1975.